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손

에스터

3장 에스터 2장 : 발단(에스터가 왕후가 됨)

01

플롯구조

“문학성을 띤 작품으로 살펴보면 플롯구조”

2 해설(2:1-2:33)

에스터가 왕비가 됨

이야기의 시작인 해설은 “행동 자체가 시작되기 전에 사건의 상태에 대한 필수불가결한 정보의 조각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런 정보들은 독자들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야기의 시간, 공간적 배경, 주요 등장인물과 그들과 관련된 사항 등 배경적 정보 등을 통해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한다. 에스터서에서는 2장이 해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페르시아 왕궁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아하수어로 왕 때라는 시간적 배경을 제공하며 또한 에스터가 왕비가 된 절차를 보여준다. 여기서는 에스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 에스터가 특별한 은혜를 입어 왕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발단(1-4)



전개(5-15)



절정(16-18)



에피소드(19-23)

02

각 절 설명

발단(1-4)

- 1절 그 후에 아하수어로 왕의 노가 그치매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 2절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 3절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 4절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손

에스터

발단 : 새 왕후를 뽑기로 함

2:1은 “그 후에”라는 문구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1장과 연결하여 볼 때 와스디 왕후 폐위 사건 후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하수어로 왕은 시간이 좀 지나 술이 깨고 화가 가라 앉은 후에 와스디 왕후와 그녀가 한 행동과 자신이 그녀에게 내린 조서를 생각하게 되었다. ‘생각하다’는 “자카르”란 단어로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을 갖는다. 이런 행동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후회하고 와스디 왕후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하지만 이런 그의 행동은 그의 옆에 있던 왕의 측근 신하들에게 의해 방해를 받는다. 2절에서 보면 왕의 측근 신하들은 왕이 와스디를 그리워하는 기색을 보이자 왕의 생각을 다른 쪽으로 돌려놓는다. 즉,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왕후로 뽑자고 제안을 한 것이다. 아름다운 왕후 와스디를 못 잇는 왕에게 신하들은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게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다. 이런 신하들의 책략은 성공하여 왕은 이 신하들의 말을 좋게 여기고 이 신하들의 말대로 행하게 허락하였다.

전개(5-15)

-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개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 6절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개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 7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 8절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개의 수하에 속하니
- 9절 헤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으레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 10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개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 11절 모르드개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 12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 14절**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 15절** 모르드개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개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터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전개 : 에스터가 왕후 후보로 왕궁에 들어감

5절부터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중심 이야기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이 소개된다. 첫 번째 소개된 인물은 모르드개로 그는 왕이 거하는 도시인 수산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며 배나민 지파의 사람으로 기스의 종손으로 소개된다.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와 강조가 된다. 이것은 그가 사는 곳이 페르시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인 에스터가 소개된다. 그녀는 모르드개의 사촌으로 부모가 돌아가셔서 모르드개가 자기 딸처럼 키운 인물로 여기서 에스터의 가장 큰 특징은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는 것이다. 이렇게 화자는 인물 소개를 끝내고 나서 다시 왕궁으로 장소가 옮겨져서 드디어 왕이 조서를 내리고 처녀들이 왕의 궁전으로 모이게 되었고 에스터도 왕궁을 끌려가게 되었다. 에스터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그녀의 의지도 모르드개의 정치적인 의지도 아닌 것 같다.

9절에서 에스터는 왕의 여자들을 관리하는 헤게라는 인물의 눈에 들었고 헤게는 에스터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녀에게 풍부한 물품과 시녀 일곱 명과 아름다운 후궁을 제공하였다. 에스터는 헤게에게 특별한 대접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헤게라는 인물을 통해 역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10-11절은 에스터의 상황과 모르드개의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모르드개의 조언에 따라 에스터는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는다. 모르드개는 끌려간 에스터가 궁금하여 날마다 후궁 앞으로 왕래하였다. 이런 행동을 통해 진심으로 에스터를 걱정하는 모르드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5절에서도 '모르드개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던'이라는 표현에서도 모르드개가 진심으로 에스터를 사랑한 것을 알 수 있다.

12-14절은 왕비를 뽑는 복잡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12달 동안을 규례대로 준비해야하는데 귀한 몰약과 향품을 각각 6개월이나 사용하여 몸을 정결히 해야 한다. 그 후에 왕에게 나아갈 때는 후궁이 요구하는 것은 모두 주고 순서대로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못 가는 것이다. 왕후를 뽑는 기준이 오직 외적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구문이다. 그러나 15절에서 에스터는 헤게가 주는 것 외에는 더 구하지 않는 순종적이며 욕심이 없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이런 모습을 왕이 사랑하게 된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손

에스터

절정(16-18)

- 16절 아하수어로 왕의 제칠년 시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 18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절정 : 왕후가 된 에스더

16절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시기를 말하는데 아하수어로 왕 7년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왕후를 얻는 과정이 4년이나 걸렸음을 알 수 있다.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왕이 다른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그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입음으로 결과적으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

그리고 또 다시 잔치를 열었고 다시 지방관과 신하들을 불렀다. 이렇게 해서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고 이를 축하하기 위한 연회를 열게 되었다.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왕의 승전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1장에서 연회에서 왕후가 폐위되면서 시작된 이야기는 2장에서 새로운 왕후인 에스더가 등극하고 그를 축하하는 연회로 마무리가 된다.

에피소드(19-23)

- 19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 20절 에스더는 모르드개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개의 명령을 양육 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 21절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어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 22절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 23절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손

에스더

에스소드 : 모르드개가 왕을 구함

19절에서 23절 부분에서는 발단 부분과는 다른 에피소드로 모르드개가 왕을 구한 사건이 언급되고 있다. 이 사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또 다시 처녀들을 모았다고 함으로 아름다운 여자에 대한 왕의 욕심이 끝이 없음을 보여준다.

우연히 모르드개가 어느 날 궁전 문에 앉아 있다가 왕의 내시들이 왕을 죽이려고 모의하려는 것을 듣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이를 왕에게 알려 왕을 구하게 되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왜 왕의 내시들이 왕을 죽이려고 하였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고 단지 그 사실을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알렸고 증거가 드러나 이들이 잡혀 죽었고 이 사실을 왕의 일기에 기록하였다고만 간략하게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사건이 후에 모르드개와 하만의 운명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예비적 사건 즉, 복선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 에스더 1-2장의 특징

다른 역사적 서술의 본문에 비해 상황을 설명하거나 물건을 설명하는 부분이 많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본문의 배경이 독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페르시아 왕궁이기 때문에 청중의 이해를 위해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페르시아 왕궁의 호화로움과 사치를 과장된 어조로 표현하여 조롱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